

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?

실어증 하나에도 여러가지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대부분 신변에 관련된 말부터 발음하게 된다.

밥, 물, 화장실 등의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 등은 쉽게 발음하지만, 조사나 접속사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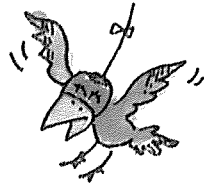
회복의 순서

- * 짧은 단어 ——— 긴단어
- * 단어 ——— 구(句)
- * 구 ——— 문장

회다 사랑스럽다 개 온다
 형용사 형용사 명사 동사



- * 흰, 사랑스러운 개, 여기, 오다.
- * 회고, 사랑스러운 개, 여기, 오다.
- * 회고 사랑스러운 개가 이리로 온다.



정말
잘 하시
네요!



어이구, 우리 현주
학교 갔다 오는구나.

다녀왔습니다.



스테이크,
맛있는
스테이크!



잡숫기
좋으시라고
잘라
놓았어요!

훈련 방법에 있어서도
신체주변의 쉬운 단어를
사용하도록 하면 환자도
이해하기 쉬울 것이다.

